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35139)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70% 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시장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시장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 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5%이내	0.885%	0.5%	0.87%	146	240	338	547	1,1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085%	0.7%	1.18%	112	228	349	605	1,338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과 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5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0.07.31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19.09.25 ~ 20.09.24	최근 2년 18.09.25 ~ 20.09.24	최근 3년 17.09.25 ~ 20.09.24	최근 5년 15.09.25 ~ 20.09.24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2-09-16	5.68	1.91	2.24	0.20	4.42			
	비교지수(%)	2002-09-16	3.88	1.42	1.27	2.33	4.79			
	수익률 변동성(%)	2002-09-16	7.96	6.44	5.76	5.26	5.26			
주 1) 비교지수 : KOSPI X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홍석	1969	상무	12 개	6,513 억원	6.84%	3.04%	6.86%	3.04%	9 년 10 개월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1 개	110 억원					
<p>주 1)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용운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또는 해산) 의 위험	투자신탁(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한매 방법	·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 17 시(오후 3 시)경과 후 : 제 4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5 영업일 지급			
한매수수료	(종류) 클래스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한매수수료	90일 미만 한매시 이익금의 70%								
	(종류) 클래스	종류C-P 수수료미징	종류S-P 수수료미징구	종류S-I 수수료미징구	종류CF-P 수수료미징구	종류C-P2 수수료미징	종류AG 수수료선취	종류CG 수수료미징구	종류C-Pe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개인연금	온라인슈퍼-개인연금	온라인슈퍼-고액	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구-오프라인-퇴직연금	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구-온라인-개인연금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해당사항 없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인 종류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메리츠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				
효력발생일	2020. 10. 08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5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 종류 S-I[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연금펀드전용 (F-P)	개인연금, 퇴직연금용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